양승조(부산상고 53회 동기) 1차 구술

1. **구술자**: 양승조
2. **면담자**: 강희영
3. **촬영자**: 권용협
4. **구술일자**: 2011년 12월 7일
5. **구술장소**: 부산 수영구 구술자 사무실
6. **구술분량**: 04분 45초 / 일부 공개
7. **주요내용**: 고교시절 농협시험 낙방, 별명 등에 얽힌 일화

면담자 :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?

구술자 : 뭐 키도 작고 조그만 해. 얼굴은 동글동글하게 좀 몬(못) 생겼고 별, 특별히 두드러진 특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없었는데 내가 초량에 집이 있으니까. 학교는 서면이고 초량에, 영주동에 부산역 앞에 아시아 독서실이라고 있었습니다. 어디 특별히 숙식할 데가 없고 하니까 그 독서실에 와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. 거기 나도 거기 같이 가서, 난 집이 그 근처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어울렸죠. 아시아 독서실에서. 그때는 독서실이 숙식까지 다 하는 독서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요만한 책상에 책 몇 개 갖다놓고 공부하고 자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죠. 그게 고등학교 이(2)학년 때입니다. 예. 이(2)학년 때는 한 반이었고 삼(3)학년 때는 반이 다른 걸로…. 뭐 그래 반이 다르든 말든 같이 다니니까, 같이 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.

면담자 : 고등학교 때 대통령님이 농협시험에 그렇게 자신만만하셨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잘 하셨나요?

구술자 : 일(1)등은 아닙니다. 아닌데 뭐 상위는 충분했을 겁니다. 상위는 충분했고 우린 뭐 중간쯤밖에 몬(못) 갔고. 왜냐면 (농협시험 보던) 그때 지 얘기는 “한명 걸리면 지가 걸리고 안 뽑으면 지는 떨어진다” 이랬거든요. 부산상고는 은행에 사백팔십(480)명 중에 이백사십(240)명 정도는 은행에 들어갑니다. 그만큼 실력들이 좋았거든요. 지금 뭐 전교에서 그러니까 진학하는 반이 또 몇 반 있으니까 그것 빼고는 마 거의 은행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. 그만큼, 지금은 은행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대학교 나와도 힘들잖아요. 그런데 그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, 부산상고만 나왔다하

면 은행에 들어갔습니다.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전국에서 항상 일(1)등을 한 정도니까 자신 있다 했는데 떨어졌습니다.(웃음)

별명은, 별명은 그때 이 친구를 '오수(午睡·낮잠) 참피언(champion)'이라 불렀는가? 수업할 때마다 앉아서 졸고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밤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수업시간에는 또 잠이 자꾸 온다 말입니다, 가만있으니까. 그러니까 오후 되면, 점심 먹고 나서 오후 되면 많이 잤습니다. 자서 '오수 참피언'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. 그때부터 약간의 반항적인 기질이, 조금 뭐 불의라든지 남 그런 건 못보고 그렇다고 힘이 있어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니까 뭐. 그런 잠재된 내면의 세계는 항상 그런 의리라고 그럽니까? 그런 쪽에 많이 심취해있었던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그렇게 작아도 요즘말로, 전에 말로 '깡단'이라 합니다. 깡다구가 있다는 게 한번은 시골에서 겨울에 집에 있는데 마옥당[1]이 집 근처에 있습니다. 마옥당 짓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도깨비불이 시골에서 아주 불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습니다. 이쪽에 있다가 "저 뭐꼬?" 이러니까 "그거 도깨비불이다." "사람 있는 거 아니가?" 불이 좀 밝아요. "가보자" 이래가지고. 아무도 거기 못갑니다, 겁이 나서. 논을 가로질러서 한 이삼백(200~300)미터 가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집 건너편 산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까지, 마옥당 고 바로 밑에까지 저하고 둘이서 안 뛰어갔습니까? 그 도깨비불 뭔가 확인하러 간다고 후라시(손전등)도 없이 그냥 막 뛰어갔거든요. 뛰어가 가지고. 가니까 아무것도 없지. 아무리 찾아도. 그만큼 남들은 시골에 살아도 겁이 나서 몬(못) 가는데 우리는 둘이서 뛰어가고.

■ **구술자 주요이력**

1948. 부산 출생

1966.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

1970.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2년 중퇴

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로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독서실에 다니다 친

1) 노 대통령이 첫 직장 '삼해공업'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형님과 봉하마을 들판 건너 뱀산 자락에 지은 토담집. 마옥당(磨玉堂)이라는 이름은 당시 노 대통령 부친이 지었고 여기서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. 노무현재단 엮음, 유시민 정리, 자서전 <운명이다>, 돌베개, 55쪽 참고

해졌다. 고등학교 졸업 후 마옥당에서 함께 사법고시 준비를 한 적도 있다. 노 대통령의 결혼식에 초대된 두 명의 고등학교 동기 중 한명이기도 하다. 그런 인연으로 이후 노 대통령의 주요 선거 때마다 힘을 보탰다.